

# ‘체육고’ 신설 안갯속… 임기 내 추진 불투명

고의숙 교육감 “예산·학교 지속가능성 등 종합검토”  
제주도체육회 신설 강력요청에도 원론적 입장 유지  
남원읍 주민과 체육계 강력 반발… 향후 대응 주목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체육고 신설 재검토 논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보여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신진성 회장 등 임원진들은 지난 10일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고의숙 교육감과 9~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도체육회는 제주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탁구 등 주요 종목별 중·고등학교 체육 활성화와 제

주도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사실상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체육고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견해를 충실히 수렴하고, 예산 상황과 학교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의 체육고 신설 재검토 논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예산 상황 등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고 신설 재검토 논란에 반발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주민들과 체육계가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남원읍체육회 등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에 따른 실시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는 것은 체육고 신설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는 ‘남원 지역 위미중의 체육고 설립은 김광수 후보(전 교육감)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의숙 후보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공개되는 등 지역 주

민들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교육감과 첫 만남이었던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체육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고 신설은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도교육청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학교 부지에 체육고를 신설하고 위미중과 중·고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당초 2026년 내에 사전기획을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4~5년 안에 설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에도 제주형 체육고 신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상태다. 위영석기자

## 주상절리대·정방폭포 발길 늘었다

7월 기준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7곳 208만명 찾아  
전년대비 12.6% 증가… 천지연폭포 야간조명 인기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방문객이 천지연폭포를 비롯해 주상절리대, 정방폭포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개장 40여년 만에 올해 야간 조명을 전면 재장비한 천지연폭포 야간 관람객이 지난해에 견줘 30% 이상 크게 늘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감귤박물관을 포함한 서귀포 지역 공영관광지 7곳을 찾은 방문객은 208만44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5만1718명보다 23만2699명(12.6%) 증가했다.

특히 방문객 증가율로 볼 때 설 연휴가 낀 2월(30.3%)과 폭염·열대야가 빈발한 여름철인 7월(18.2%)에 급증했다. 올해 관광지별 방문객과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천지연폭포 51만2871명(6.0%) ▷정방폭포 34만4762명(20.0%) ▷천지연폭포 19만9510명(6.3%) ▷주상절리대 69만4310명(35.3%) ▷산방산 6만9784명(17.3%) ▷용머리해안 23만1846명(-19.6%) ▷감귤박물관 3만1388명

(-2.0%) 등이다.

주상절리대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1058명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안덕면 소재 용머리해안은 개장시간과 기상 악화에 따른 출입시간 조정 및 통제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을 키웠다.

올해 야간 개장 42년 만에 야간 조명을 재장비한 천지연폭포를 찾은 방문객도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 7월에만 7만7509명이 방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848명에 견줘 662명(9.4%) 늘었다. 특히 야간에 1만2535명이 찾아지면서 전년도 동기의 9473명보다 3062명(32.3%) 급증했다.

시는 올해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천지연 관광로 조명등 정비사업’을 완료, 지난 5월부터 재가동했다. 노후 조명등 9종·185개를 전면 교체하고 천지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 조명 연출을 새롭게 구현하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 배달 다화용기 주문 2만건 조기 달성

올해 주문 2만1600건… 누적 3만1120건 돌파

제주도가 추진하는 배달앱 다화용기 이용사업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8월 둘째 주 기준 올해 배달 앱 다화용기 주문은 2만1600여건을 기록해 올해 목표인 2만건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사업 시작 이후 누적 주문은 3만1120여 건에 달했으며, 1회용품은 약 4t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참여 매장도 늘고 있는 등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도 전 동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예래동·중문동 등 4개 동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인 200개

소에서 533개소로 크게 늘었다.

주문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주문은 1분기 55.3건에서 2분기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친환경 실천에 대한 보상을 지역 경제와 연결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다화용기 이용 시 주문자와 참여 매장에 각각 지역화폐인 탐나는진 1000원을 지급하며, 주문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5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임흥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는 내년 서비스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용기 종류 확대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 보상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여름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한여름 밤하늘의 대표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가 도래한 13일 새벽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관측됐다.

장태봉기자

## 제주시,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주요도로 정비

제주시는 오는 9~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대비해 지역 내 주요도로 15개 노선에 대한 포장보수 공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7억원을 투입해 선수단과 방문객의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역 내 주요도로

의 포장상태를 조사하고 경기장과 주요 방문지와의 연계성, 교통량, 포장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정비가 필요한 15개 노선을 선정, 체전 개최 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일주도로, 중앙로, 애조로, 노형로, 연삼로, 탐동해안로, 한림해안로, 애월해안로, 김녕로, 한경해안로 등이다. 백금탁기자

## 서귀포시,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서귀포시가 오는 20일부터 ‘2026년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추경을 통해 본예산 600만원에 이어 1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재개됐다. 이에 지원 규모는 기존 지원 대상에 46가구가 추가됐다.

대상 가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7곳)에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수술 등 필수 의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성화 수술은 실내견에 한하며 암컷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www.seogwipo.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 3cm +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